

# 李賀 詩에 나타난 歷史 人物의 詩的 形象\*

姜昌洙\*\*

---

## ◁ 목 차 ▷

---

- I. 緒言
  - II. 本論
    - 1. 屈原과 《楚辭》
    - 2. 秦始皇과 漢武帝
    - 3 司馬相如
  - III. 結語
- 

## I. 緒言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인간만 사 塞翁之馬 아니겠나”라고 말할 경우, ‘새옹지마’란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대화는 더 이상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나 산문을 읽을 때,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나 단어가 쓰여 있다면 그 시나 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상, 나아가서 비평은 힘들 수도 있으며, 설사 감상이나 비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sup>1)</sup> 그러한 이야기나 단어를 중국문학에서는 ‘典故’라고 하며, 전고의 사용을 ‘用典’이라고 한다. 즉 전고란 시나 산문 등 문학작품에 인용된 전대의 이야기나 출처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산문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중국 시에서는 전고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유는

---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중어전공 교수

1) 실제로 陸游의 〈長安道〉라는 시에는 “塞翁失馬猶爲福”이란 시구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자 수가 제한되는 시에서 많은 내용과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전고의 효용성과 유용성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전고 사용에 대하여 역대로 많은 평자들이 호불호나 찬반을 표시하기도 하였지만,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시어의 경제성이나 함축성 또는 상징성 등을 위하여 수많은 시인에 의하여 전고가 생명력을 가지고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를 감상하고 비평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감상과 비평을 위해서라도 전고의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杜甫는 “책 만권을 독과하니, 글쓰기가 신들린 듯하네”<sup>2)</sup>라고 하여 작시에서 독서를 통한 지식을 중시하였는데, 그 결과 杜甫의 시에는 수많은 전고가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평을 받는다. 黃庭堅은 “스스로 말을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 杜甫가 시를 짓고, 韓愈가 문장을 썼는데, 한 글자도 내력이 없는 것이 없다”<sup>3)</sup>라고 하여 그 유명한 “無一字無來處”로 두보나 한유의 시문에 전고가 많은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이하 역시 전고의 사용이 어느 시인 못지않게 많다. 240여 편의 시에서 용전이 무려 530여 곳이며, 한 수의 시에 몇 가지의 전고가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전편이 전고로 이루어진 시도 있다.<sup>4)</sup> 管燾은 이하 시에 나타난 전고의 출처를 經史子集으로 나누어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sup>5)</sup>

본고에서는 李賀의 시 중에서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 즉 전고를 다루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그 시에 나타난 역사적 인물의 시적 형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屈原, 秦始皇, 漢武帝 그리고 司馬相如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왕족이었으나 뜻을 펴지 못하고 불과 27세의 나이로 요절한 천재시인, 避諱라는 악습으로 進士試에 응시조차 하지 못한 불우한 시인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무엇을 노래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李賀 시의 실제적 진실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杜甫, 〈奉贈韋左丞丈二十韻〉: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

3) 黃庭堅, 〈答洪駒父書〉: “自作語最難, 老杜作詩, 退之作文, 無一字無來處”.

4) 管燾, 〈李賀詩歌的用典藝術〉, 《樂山師範學院學報》第21卷 第6期, 2006年 6月.

5) 上同.

## II. 本論

### 1. 屈原과 《楚辭》

李賀의 시와 《楚辭》와의 관계를 최초로 언급한 평어는 杜牧의 〈李賀集·序〉이다. 두목은 자신이 沈子明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문을 쓰게 된 경유를 설명하고 나서, 韓愈가 이하의 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인용하고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經部	詩類	《韓詩外傳》2, 《詩經》11
	易類	《春秋元命包》1, 《周易》2
	禮類	《周禮》2, 《周禮注》3, 《檀弓》2, 《大戴禮記》1, 《禮記》10
	書類	《書傳》2, 《書經》2
	春秋類	《左傳》5, 《左傳注》1
史部	正史類	《史記》38, 《晉書》7, 《南史》1, 《隋書》4, 《漢書》49, 《宋書》2, 《北史》2, 《後漢書》22, 《三國志》2, 《魏書》4, 《北齊書》1, 《南齊書》1, 《梁書》1
	地理類	《三輔黃圖》5, 《荊楚歲時記》2, 《水經注》5, 《元和郡縣志》3
	戴記類	《華陽國志》2, 《越絕書》1, 《吳越春秋》2, 《十六國春秋》2
	政書類	《通典》3
	雜史類	《戰國策》5, 《國語》2
子部	類書類	《藝文類聚》2, 《初學記》6
	道家類	《列子》4, 《列仙傳》5, 《莊子》7, 《抱朴子》1, 《神仙傳》2
	小說家類	《異苑》1, 《博物志》5, 《拾遺記》2, 《山海經》6, 《漢武故事》3, 《世說新語》15, 《搜神記》4, 《述異記》7, 《漢武內傳》4, 《穆天子傳》3, 《西京雜記》3, 《朝野僉載》1, 《大唐新語》1
	譜錄類	《禽經》1
	法家類	《韓非子》2, 《管子》1
	儒家類	《法言》2, 《家語》2, 《荀子》1
	農家類	《齊民要術》3
	釋家類	《楞嚴經》1
集部	楚辭類	《楚辭》20, 宋玉賦 8
	別集類	李太白詩 5, 古詩 5, 古樂府 3, 杜甫詩賦 13, 庾信詩賦 9, 枚乘《七發》2, 陸機詩 3, 張協《七命》3, 左思賦 7, 揚雄賦 1, 曹植詩賦 8, 司馬相如《上林賦》2, 劉楨詩賦 2, 張衡賦 6, 班固詩賦 2, 鮑照詩 5, 潘岳詩賦 3, 江淹詩賦 3, 沈約詩賦 4, 古烏夜啼曲 2, 古西洲曲 2, 古讀曲歌 1, 古陌上桑詞 3
	總集類	《文選》3

※ 書名 뒤의 숫자는 사용 횟수를 나타냄.

이하의 시는 대체로 〈離騷〉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치는 비록 〈離騷〉에 미치지 못하지만 문사는 간혹 〈離騷〉를 뛰어넘는다. 〈離騷〉에는 원망의 감정과 풍자가 있고, 군신간의 선정과 악정이 언급되어 있어서, 때때로 사람의 마음을 격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면 이하의 시에는 설마 그런 것들이 없겠는가. 이하가 과거의 역사적 전고를 잘 찾아낸 것은, 고금에 일찍이 노래하지 않았던 일들을 깊이 탄식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金銅仙人辭漢歌〉나 양나라 유견오의 〈宮體謠〉를 보완한 것 등이 그러한 것이다. 감정의 추구함이 전인의 진부한 문장의 범식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에, 간혹 유달리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이하는 겨우 스물일곱을 살고 죽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만약 이하가 죽지 않고, 작품에 이치를 좀 더 보태었다면, 〈離騷〉를 노복으로 삼을 정도였을 것이라고.(蓋騷之苗裔, 理雖不及, 辭或過之. 騷有感怨刺懟, 言及君臣理亂, 時有以激發人意. 乃賀所爲, 得無有是. 賀能探尋前事, 所以深嘆恨古今未嘗經道者, 如〈金銅仙人辭漢歌〉·補梁庾肩吾〈宮體謠〉, 求取情狀, 離絕遠去筆墨畦徑, 間亦殊不能知之. 賀生二十七年死矣, 世皆曰: 使賀且未死, 少加以理, 奴僕命騷可也.)<sup>6)</sup>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이하가 ‘前事’ 즉 과거의 역사적 전고를 잘 찾아내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이하가 전고의 활용에 뛰어났음을 말한다. 다음으로 이하의 시와 《楚辭》를 대표하는 〈離騷〉와의 관계이다. 두목은 이하의 시를 〈離騷〉의 후예라고 했다. 이어 이하 시의 이치 부족과 문사의 풍부함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이하가 오래 살아서 이치를 좀 더 보태었다면 그 시가 〈離騷〉를 능가할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두목의 이 평어에 많은 비평가들이 찬동하기도 했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많은 평자들이 두목의 이 평어 “少加以理, 奴僕命騷可也”를 언급하며 이하 시에 대한 비평의 표준으로 삼은 듯하다. 그렇다면 두목이 말한 “理”는 무엇이고, “辭”는 무엇인가? 理는 일반적으로 작품에 내재된 사상이나 이치 정도로 볼 수 있으며, 辭는 작품에 표현된 형식적인 면, 즉 詩語나 수사의 방법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비평방법 즉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말하는 文質彬彬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목이 말한 理와 辭를 전통적인 문질彬彬의 입장에서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두목이 과연 이하 시를 다 읽었으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두목이 유독 이하 시의 이치가 〈離騷〉에 미치지

6) 杜牧, 〈李賀集序〉; 葉葱奇 《李賀詩集》(台北, 里仁書局, 民國 71年), 356쪽.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고 한 것은 그가 이하 시의 장점이 이치의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sup>7)</sup>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따라서 두목이 말한 “이하의 시가 理의 면에서 〈離騷〉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하 시에서 나타나는 사상성이나 설리성이라기 보다는 이하 시에 나타나는 지나친 낭만성이나 환상성, 나아가 시의 난해함에 치중한 평가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일정 부분 《楚辭》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淸의 沈德潛은 이하 시가 《楚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하의 시는 매 시가 〈天問〉, 〈招魂〉과 근사하여, 《楚辭》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어가 공교함을 추구하였으나, 그 구성이나 경계가 협소한데, 그것은 기둥 끝에 산을 세기고 대들보에 무늬를 그리는 듯한 병폐가 있기 때문이다.(李長吉詩, 每近天問招魂, 楚騷之苗裔也; 特語語求工, 而波蘭堂廡又窄, 所以有山節藻梲之謂.)<sup>8)</sup>

이하의 시는 《楚辭》의 〈離騷〉를 추종했으나, 의미가 오묘하며 문사가 진귀하다. 왕왕 의미 있는 시구가 만들어지면, 비단주머니에 던져 넣고 나서 시를 이루어냈으므로 매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심장을 토해내는구나”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만약 명줄이 길었더라면 반드시 대가가 되었을 터이다. 하지만 천지간에 이러한 필치를 없앨 수는 없다. 백거이의 평이함이 있는 것처럼 이하의 난해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長吉詩依約楚騷, 而意取幽奧, 辭取瑰奇, 往往先成得意句, 投錦囊中, 然後足成之, 所以每難疏解. 母氏謂兒當嘔心者, 此也. 使天假以年, 必更進大方. 然天地間不可無此種文筆, 有樂天之易, 自應有長吉之難.)<sup>9)</sup>

이상의 인용문들을 통하여 이하의 시와 《楚辭》와의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이하의 시를 통하여 이하와 굴원 그리고 《楚辭》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 시에 시어로서 굴원이란 인물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시는 〈筮篋引〉 한 수이다. 그보다는 굴원으로 대표되는 《楚辭》와 〈離騷〉·〈天問〉 등 작

7) 劉辰翁, 〈箋注評點李長吉歌詩〉: 「獨惜理不及〈騷〉, 不知賀所長正在理外。」(王友勝·李德輝 校注《李賀集》, 長沙, 岳麓書社, 2003年, 446쪽).

8) 沈德潛, 《說詩碎語·卷上》: (王友勝·李德輝 校注 前掲書, 446쪽).

9) 沈德潛, 《唐詩別裁集·卷八》: 王右丞《李賀集》, 北京, 2004년, 451쪽.

품명으로 등장한다.

元和 6년(811) 봄, 奉禮郎으로 임명되어 長安으로 간 이하는 봉례랑이라는 낮은 관직을 지내며,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유람을 다니며 시를 짓기도 하였다. 그가 장안에 있을 때의 교유로는 일찍이 낙양에서부터 알았던 韓愈·皇甫湜 외에 陳商·沈亞之·李漢 등이 있는데, 모두 한유 문하의 인물들이었다. 특히 진상에게는 〈贈陳商〉이라는 시를 주었다.

〈贈陳商〉

長安有男兒	장안에 한 사내
二十心已朽	나이 스물에 마음은 이미 늙었다
楞伽堆案前	《楞伽經》은 책상머리에 쌓여 있고
楚辭繫肘後	《楚辭》는 손에서 놓지 못한다
人生有窮拙	세상살이 곤궁하고 졸렬하여
日暮聊飲酒	해질 무렵 그저 술만 마신다
祇今道已塞	지금 길은 이미 막혀버렸으니
何必須白首	흰머리 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下略〉	

朱自淸의 《李賀年譜》에 따르면, 이 시는 元和 6년(811년) 겨울, 이하가 22세 때 奉禮郎으로 재임 시에 쓴 것이라고 한다. 이 시는 모두 34구로 陳商의 인품과 문장에 대한 찬사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현재 생활모습과 그에 대한 불평과 앞날에 대한 포부 등이 적절히 배합된 수작이라고 평가 받는 시이다. 인용 부분은 시의 前 8구로 陳商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 먼저 이하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술이라고 할 수 있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봉례랑이란 미관말직에, 생활환경 또한 극히 열악하여 술과 독서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 3구와 4구에서는 이하의 학습과 독서 대상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 대승불교의 경전인 《능가경》과 《楚辭》에 대한 학습과 심취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 시에서도 이하의 《楚辭》에 대한 애호와 심취를 엿볼 수 있다.

〈傷心行〉

啞啞學楚吟	애달게 초사의 애달픈 가락을 흉내 내니
-------	-----------------------

病骨傷幽素	병든 몸 상하여 어둑하고 적막하다
秋姿白髮生	가을 풀잎 같은 모습에 흰 머리 생기고
木葉啼風雨	나뭇잎은 비바람에 운다
燈靑蘭膏歇	파란 등잔불의 난향 기름 다해가니
落照飛娥舞	가물가물 불꽃에 나방이 춤춘다
古壁生凝塵	낡은 벽엔 먼지만이 쌓이는데
羈魂夢中語	나그네 영혼은 꿈속에서 중얼댄다

이 시는 주자청의 《李賀年譜》에 따르면 원화 7년(812년)에 지은 것으로, 역시 長安에서 봉례랑을 할 때 지은 시이다. 시의 제목 〈傷心行〉은 樂府 〈雜曲歌辭·側調曲〉의 〈傷歌行〉에서 온 것이다. 이 시는 개인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하의 秀作으로 “病骨”·“秋姿” 등의 시어로 자신의 형상을 그려내니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이하라는 인간을 이해하게 하는 재료라 할 수 있다.<sup>10)</sup> 全詩를 둘러싸고 있는 쇠락하고 처량한 기분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悲愁는 이하 특유의 것이다. 난감한 심정이 외계의 처량한 사물과 비유되며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의 《楚辭》로부터 이끌어지고 있다. 첫 구 “楚吟”은 바로 《楚辭》의 哀怨의 가락을 말한다. 특히 시어 “蘭膏”·“飛娥”·“羈魂” 등은 바로 《楚辭》로부터 나온 것이다.<sup>11)</sup>

〈昌谷北園新筍四首·其二〉

斫取靑光寫楚辭	푸르게 빛나는 대를 쪼개 《楚辭》를 쓰는데
膩香春粉黑離離	질은 묵향 가루 날리는 대껍질에 검은 글씨 가득하다
無情有恨何人見	무정한 사물에도 한이 있음을 그 누가 알랴
露壓煙啼千萬枝	뭇잎에 쌓인 이슬 안개 속에 떨어지며 운다

〈昌谷北園新筍〉은 모두 네 首로 인용시는 그 두 번째 시이다. 이 시는 봉례랑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있을 때 쓴 시이다. 昌谷은 이하의 고향이다. 이하는 고향집의 북쪽 뜰에서 공부를 하다가 새로 난 대나무 순을 보고 이 시들을 지었다. 대나무는 이하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하는 대나무를 노래하는 많은 시를 지었다. 대나무의 상향하고자하는 힘찬 생명력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

10) 蔡英俊, 《古錦囊與白玉樓》(台北, 偉文圖書, 民國67年), 48쪽.

11) 王琦, 《李長吉歌詩王琦彙解》(台北, 世界書局, 民國71年), 77쪽 參照.

고 싶은 욕망이 이러한 연작시를 짓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푸른 대를 쪼개어 《楚辭》를 쓴다. 여기서의 《楚辭》는 글자 그대로 屈原을 대표로 하는 〈離騷〉와 〈天問〉·〈招魂〉 등을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회재불우한 자신의 시를 일컫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3구의 “無情”과 “有恨”의 대비가 아주 탁월하다. “無情”한 것은 대나무이다. “有恨”한 것은 그 대나무 위에 쓴 자신의 《楚辭》, 즉 재능이 있어도 뜻을 펼치지 못하고 등용되지 못하는 자신의恨일 것이다.

李賀가 屈原과 《楚辭》에 대하여 이렇듯 많은 공감을 가진 것은 무엇보다 굴원의 생애에 무한한 동정을 보내며 자신과의 동일성을 발견하고 추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하의 생애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인 進士試 응시 불능이 바로 그것이다. 그 사건은 韓愈가 쓴 〈諱辯〉을 통해 알 수 있다. 굴원 또한 참조로 인하여 楚나라 懷王에게 배척받게 되는데 그것은 司馬遷의 《史記·屈原列傳》에 상세히 나온다. 한유의 〈諱辯〉과 사마천의 《史記·屈原列傳》을 살펴보자.

韓愈가 李賀에게 편지를 하여 진사에 응시할 것을 권하였다. 李賀가 진사에 응시하여 이름이 나니 李賀와 경쟁하는 이들이 헐뜯어 말하기를 “李賀의 부친명이 晉肅이니 李賀는 進士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옳고, 응시할 것을 권한 사람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부친의 이름이 “仁”이라면 아들은 “人(사람)”조차 될 수 없다는 말인가?(愈與李賀書, 勸賀應進士. 賀應進士有名, 與賀爭名者毀之曰: 賀父名晉肅, 賀不舉進士爲是, 勸之舉者爲非. … 若父名仁, 子不得爲人乎?)<sup>12)</sup>

懷王이 屈原에게 법령을 기초하라고 시켰는데, 굴원이 아직 초고를 아직 완성하기 전에, 上官大夫가 그것을 보고 빼앗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했다. 굴원이 주지 않으니, 그는 회왕에게 굴원을 헐뜯어 “왕께서 굴원에게 법령을 만들라고 시킨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번 하나의 법령이 발표될 때마다, 굴원은 자신이 아니면 해낼 사람이 없다고 그 공을 자랑합니다”라고 비난하였다. 왕이 노하여 굴원을 멀리하였다.(懷王使屈原造爲憲令, 屈原屬草稿未定. 上官大夫見而欲奪之, 屈原不與, 因讒之曰: “王使屈原爲令, 衆莫不知, 每一令出, 平伐其功, 以爲非我莫能爲也.” 王怒而疏屈原.)<sup>13)</sup>

李賀가 屈原과 《楚辭》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가지고 아울러 그 표현수법을 학습

12) 韓愈, 〈諱辯〉: 《韓昌黎集》(台北, 河洛圖書, 民國70年) 34쪽.

13) 司馬遷, 《史記·屈原賈生列傳》.



하고 자신의 창작 연원으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도 굴원과 자신이 讒言의 피해를 공통적으로 입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하의 경우 한유가 자신을 위하여 〈諱辯〉을 짓고, 친구인 皇甫湜·沈亞之·李漢 등이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결국 “避諱”라는 장애와 참언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진사시에 응시조차 하지 못한다.

屈原은 처음에 楚 懷王의 左徒를 담당했다. 건문이 넓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밝고 외교적인 사령에도 익숙하였다. 대내적으로 왕과 함께 국사를 기획 논의하여 명령을 내리고, 대외적으로는 빈객을 접대하고 제후를 응대하여, 왕이 그를 매우 신임할 정도였다.<sup>14)</sup> 그러나 끝내는 결국 동료의 질투와 참언으로 말미암아 왕과 멀어지고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것이다.

참언으로 진사시조차 응시하지 못한 이하는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상 또한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고, 굴원 역시 참언으로 인하여 권력에서 멀어지고 훌륭한 정치를 펼칠 기회를 무산하게 되었다. 그들의 불행은 그들의 뛰어난 재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비극적 운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하는 결국 자신의 불우함을 하소연할 대상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굴원이었던 것이다. 또한 굴원이 초사 특유의 예술적 방식과 정신으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그것에 이하는 심취하였고 자신의 회재불우를 노래하는 예술적 방식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秦始皇과 漢武帝

秦始皇과 漢武帝는 성격이나 행적 등의 방면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는 인물이다. 진시황은 焚書坑儒라는 사상의 억압과 통제를 통하여 法家思想으로의 통일을 꾀하였고, 한무제 역시 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무렵까지 성행하여 儒家와 어깨를 겨루고 있던 道家·法家·名家·墨家 등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상을 배척하여 유가를 국가종교와 같은 위치에 두는 사상적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었다. 13살로 즉위한 秦王 政은 齊나라를 마지막으로 6국을 멸망시키고 스스로 진시황이 되었다. 17세에 즉위하여 무려 54년을 재위한 한무제는 匈奴를 침략하고 南越을 정복하여 진시황에 이어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들은 무력을 남용하고 수많은 전

14) 司馬遷, 《史記·屈原賈生列傳》: 「爲楚懷王左徒. 博聞強志, 明於治亂, 嫻於辭令. 入則與王圖議國事, 以出號令. 出則接遇賓客, 應對諸侯. 王甚任之.」

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帝業을 이루고자했던 것이다.

秦始皇은 통일 다음 해인 기원전 220년 서북 일대의 巡幸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사망할 때까지의 10년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행하였다. 순행의 목적은 지역의 민심을 살피고, 황제의 권위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漢武帝 역시 무려 30여 차례나 순행을 했다는 것이다. 진시황은 순행 중 태산에 올라 封禪을 행하였고, 동해바다에 이르러 三神山을 찾게 하고 선인과 불사약을 구해오라 시키기도 하는 등 영생을 추구했다. 한무제 역시 태산에 올라 봉선을 행하였고 동쪽 바다에 가서 별궁을 만들고 머물기도 했다. 순행하는 중간에 각 지역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또 신선사상에 기울어 방사들의 말을 듣고 불로장생의 길을 좇기도 하였다.<sup>15)</sup>

그들은 일생동안 전쟁을 한 것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신선을 기구하고 불사약을 구하는 데 소비했다. 그들의 그러한 황당무계한 생각과 괴이한 행동은 왕왕 시인들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먼저 진시황의 폭정을 노래한 이하의 시 〈白虎行〉을 보자.

〈白虎行〉

火鳥日暗崩騰雲  
秦王虎視蒼生群  
燒書滅國無暇日  
鑄劍佩玦呼將軍  
玉壇設醮思衝天  
一世二世當萬年  
燒丹未得不死藥  
擊舟海上尋神仙  
鯨魚張鬣海波沸  
耕人半作征人鬼  
雄豪猛餒烈燒空  
無人爲決天河水  
誰最苦兮誰最苦  
報人義士深相許

불까마귀의 해 어두워지고 뭉게구름 무너지니  
진시황은 창생들을 호랑이처럼 노려보았다  
서적 불태우고 타국 멸하느라 한가할 틈이 없으며  
칼 만들고 패옥 가슴에 차고 장군을 부른다  
옥 제단에 초례 만들어 하늘로 솟을 생각에  
일세 황제 이세 황제 만년을 누리리라  
단약을 달구어도 불사약을 얻지 못해  
배 저어 바다로 가 신선을 찾게 했다  
고래 수염 휘 날리니 바다 파도 끓어대고  
농사 짓던 사람들 반이나 나그네길 귀신 됐다  
영웅호걸들 타오르는 불길 속 허공으로 사라졌고  
은하수 물길 터 불을 끌 이 아무도 없었다  
누구인가 가장 괴로운 이, 누구인가 가장 고통스런 이  
보답하는 의로운 선비 굳게 서로 약속했다

15) 박한제 외 지음, 《아틀라스 중국사》(서울, 세계절출판사, 2008년 9월), 30-31쪽 참조.

漸離擊筑荊卿歌	고점리가 축을 타고 형가는 노래하며
荊卿把酒燕丹語	형가는 술을 들어 연 태자 단에게 말했다
劍如霜兮膽如鐵	서릿발 같은 갈과 무쇠 같은 간담으로
出燕城兮望秦月	연나라 성을 나와 진나라 달을 바라보았다
天授秦封祚未終	하늘이 준 진나라의 국운이 다하지 않아서
袞龍衣點荊卿血	진시황 곤룡포엔 형가의 피만 묻었다
朱旗卓地白虎死	마침내 붉은 기 땅에 꽃히고 백호가 죽으니
漢王知是真天子	한나라 왕이야말로 이를 이는 진정한 천자로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진시황은 21세 때에 呂不韋와 嫪毐를 제거하고 親政을 시작하였다. 이후 李斯를 등용하여 철저한 법치주의 정책을 폈던 그는 38세에 통일에 성공한 후 통일 제국의 기반을 확립하는 정책을 폈다. 諡號를 폐지하여 영원히 이어질 왕조의 처음을 뜻하는 시황제로 자신을 부르게 했고, 전국에 郡縣을 설치하여 중앙 집권 체제의 골격을 갖추었으며, 문자, 도량형, 화폐 등을 통일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유가 경전을 불태우고 유생을 파문은 소위 焚書坑儒 사건으로 폭군과 폭정의 상징적인 인물로 비판받는다. 제목의 “白虎”는 바로 진나라와 진시황을 비유한 말이다. 秦은 백색을 국가의 正色으로 삼았기에 “백호”라 한 것이다. 제1, 2 두 구는 周나라가 쇠하고 秦나라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 불까마귀는 周의 帝業을 비유한 것이다. 이어 焚書坑儒와 六國의 멸망, 그리고 封禪을 노래했다. 진시황 폭정의 역사적 사실을 노래한 것이다. 특히 제3, 4구에서는 “燒書”, “滅國”, “鑄劍” 등의 시어로 진시황의 호전성과 전횡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제5-12구에서는 만세의 제업을 잇고자 했던 욕망과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몬 일과 폭정을 노래했다. 주지하다시피 진시황은 그 이름 자체부터 皇과 帝를 결합시켜 자칭 시황제라 하였으며, 그 이름이 2세 황제, 3세 황제로 천년만년 무궁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제11, 12 두 구는 진시황 폭정의 총결인 셈인데, “타오르는 불길”은 진의 폭정을 비유하며, 이러한 “타오르는 불길”을 제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노래한다. 바로 “無人”은 진시황의 폭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음 시구에 등장하는 荊軻를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시어이다. 마지막 단락인 제13-22구는 자객 荊軻의 사건과 결국은 한나라에 의

해 무너진 秦을 노래했다. 그것은 바로 진의 흥망에 대한 시인 이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형가의 진시황 암살 사건은 진시황의 폭정에 대한 저항 중에서 가장 장렬하고 비장한 것으로써 《史記·刺客列傳》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더욱 두드러진 부분이다. 진시황의 폭정과 부질없는 불사의 추구, 형가의 사건 등 역사적 사건을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필치로 엮어낸 수작이다.

漢武帝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켰다. 匈奴를 복속시켜 천하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침범하였으며, 南越을 침략하여 9郡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한무제가 張騫을 西域으로 파견한 것은 月氏와 연합하여 흉노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월지와의 동맹은 무산되고 흉노 복속도 실패로 끝났지만, 장건의 서역 견문은 무제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었고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한무제의 서역에 대한 관심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황하의 근원인 崑崙을 찾는 것이었고, 둘째는 곤륜에 접근할 수 있는 汗血馬를 구하는 것이었다. 한무제는 한혈마를 획득하기 위해 李廣利에게 대규모 군대를 거느리고 大宛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한무제는 신화 인물인 禹의 치수가 西王母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고, 서왕모가 거처하는 곤륜으로의 여행을 통해 개인적 不死의 욕망 충족과 治水라는 제국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그에게 서역 원정은 치수와 불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sup>16)</sup> 이하의 시에는 그러한 馬와 장생불사의 허황됨에 대한 비판을 노래한 것이 있다. 〈馬詩〉 제22수와 제23수를 보자.

〈馬詩二十三首·其二十二〉

汗血到王家	한혈마가 왕가에 와서
隨鸞撼玉珂	천자의 수레 따라다니며 옥 방울 딸랑거렸다
少君騎海上	李少君이 바닷가에서 탔는데
人見是青驄	사람들은 푸른 노새로 보았다하네

한혈마는 돌을 밟으면 자국이 나고, 前肩膊部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름이 붙어졌다는 천마의 일종이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가진 말이 왕후의 집에서는 겨우 옥으로 장식하고 수레를 따라다

16) 박한제 외 지음, 前掲書 38쪽 참조.

니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 또한 한무제를 속인 사기꾼 方士 李少君이 났다면, 사람들이 그 말이 천리를 달리는 한혈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한혈마와 방사를 소재로 하여 자신의 회재불우를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다.

〈馬詩二十三首·其二十三〉

武帝愛神仙	한무제는 신선을 좋아하였지만
燒金得紫煙	금을 태워서 자줏빛 연기만을 얻었다
廐中皆肉馬	마구간에는 모두 살찐 말뿐
不解上青天	푸른 하늘 오르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한무제는 중국역사상 신선술과 장생불사에 대해 가장 미혹했던 황제이다. 그는 즉위 초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방사들에게 속임을 당했고 그러한 일화는 많은 시의 제재가 되기도 했다. 제2구는 도가에서 말하는 이른바 금을 단련하여 단약을 만들어 복용하면 장생불사한다는 연단술이란 것이 결국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몇 차례나 군사를 파견하고 많은 경비들 들여 가져온 한혈마들이 좋은 말은 불과 수십 필뿐이고 나머지 3천여 필은 평범한 말에 불과하다는 역사적 사실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한 말들은 하늘에 오르기는커녕 땅을 달리기도 힘든 말들, 소위 살만 찐 “肉馬”인 것이다. 끝 두 구는 표면적으로는 말을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당시의 정치적 난맥상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마구간은 조정이며, 그 조정에는 능력 없는 무리들만 가득 차, 저 푸른 하늘을 오르는 즉 원대한 정치적 이상은 언제 이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한무제가 추구한 불로장생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노래한 시이다.

〈崑崙使者〉

崑崙使者無消息	곤륜산으로 보낸 사자는 소식이 없어
茂陵煙樹生愁色	한무제의 무덤의 안개 낀 나무에는 시름 깊은 색깔만이
金盤玉露自淋漓	금쟁반의 옥이슬은 저절로 젖어버리고
元氣茫茫收不得	무제의 원기 아득하여 불로장생은 얻지 못 하네
麒麟背上石文裂	기린 등 위의 돌문자는 갈라지고
虬龍鱗下紅肢折	규룡의 비늘 아래엔 붉은 다리는 부러졌다

何處偏傷萬國心	온 천하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였을까
中天夜久高明月	중천에 밤이 깊어 밝은 달만 높이 떠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무제가 大宛의 한혈마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장생불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루에 천리마를 달린다는 天馬인 한혈마를 타고 곤륜산으로 서왕모를 만나러가고자 함이었던 것이다. 많은 일화와 시 등을 통해서 한무제에게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제업보다는 그의 내심에 존재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로장생의 갈망이다. 서역으로 보낸 使者는 張騫을 일컫는다.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러 보낸 것이리라. 그러나 한무제는 이미 저세상의 사람이다. 넘치던 원기도 더 이상 사라지고 없다. 한무제의 무덤 앞에 장식되어 있던 기린 모양의 석상과 용 모양의 건축물도 모두 부서졌다.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와서 한무제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이제 남은 것이라곤 저 중천에 떠있는 달뿐이다. 시의 제목 ‘崑崙使者’는 장건을 일컫는 것이지만, 내용은 장건을 사자로 보낸 한무제에 관한 것이며, 나아가 한무제의 불로장생의 욕망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 3. 司馬相如

李賀의 최대의 불우함은 진사에 응시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하는 회재불우의 인물들에 대하여 일종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시에서 그러한 회재불우의 인물들을 자신에 비유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로 바로 사마상여를 들 수 있다. 이하의 시에서 사마상여의 인물 전고를 언급한 시는 모두 7수가 있다.<sup>17)</sup>

《史記·司馬相如列傳》에 따르면, 司馬相如是 蜀郡 成都사람으로 字가 長卿이다. 兒名은 犬子였으나, 藺相如의 사람됨을 사모하여 相如로 개명하였다. 漢 景帝 때 武騎常侍라는 벼슬을 지냈다. 景帝의 동생인 梁 孝王이 鄒陽·枚乘·莊忌 등을 거느리고 내조하였을 때, 相如是 그들에게 마음이 끌려 병을 핑계로 사직, 梁 孝王을 따라나섰고, 孝王은 그를 鄒陽 등과 함께 머물도록 했다. 그때 지은 작품이 〈子虛賦〉였다. 梁 孝王이 죽자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난하였고 할 일도 없었다.

17) 管雯, 〈李賀詩歌的用典藝術〉(南京, 《樂山師範學院學報》2006年), 28쪽.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臨邛令 王吉의 도움으로 臨邛의 부호인 卓王孫이 잔치를 열어주었고, 그는 막 과부가 된 卓王孫의 딸 卓文君을 거문고로 유혹하여 함께 야반도주하여 고향인 成都로 돌아왔다. 그러나 “家徒四壁立(집에는 다만 네 벽만이 서있을 뿐)”정도로 가난하여 다시 臨邛으로 돌아와 장사를 하였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卓文君의 도움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부자로 살았다. 그 후 오랜 뒤에 그의 〈子虛賦〉를 본 무제가 그를 칭찬하며 “네 어찌 이를 지은 사람과 때를 함께 하지 못하였던가”라고 하자 楊得意가 사마상여가 지었음을 아뢰었고, 그는 무제에게 불려가 천자의 유럽을 내용으로 한 〈上林賦〉를 지어 무제의 사랑을 받았다.

사마상여는 兩漢을 통털어 漢賦 최고의 작가로서 賦로써 천자 옆에 갈 수 있었으며 관직도 얻을 수 있었다. 《漢書·藝文志》에는 그의 賦가 모두 29수가 있다고 하나, 현재 전하는 것은 상기 두 편 외에 〈大人賦〉·〈美人賦〉·〈長門賦〉·〈哀秦二世賦〉 등이 있다.

앞서 이하의 시에서 司馬相如가 등장하는 시는 모두 7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 4수는 사마상여로써 자신을 비유한 시이며, 나머지는 단순히 사마상여를 언급한 시이다. 자신을 사마상여에 빗댄 시들을 보자. 다음 시는 〈南園十三首·其七〉이다.

〈南園十三首·其七〉

長卿牢落悲空舍	사마상여는 실의에 빠져 빈 방에서 슬퍼했고
曼倩談諧取自容	동방삭은 우스갯소리로 무제에게 받아들여졌다
見買若耶溪水劍	야아산 계곡 물에 씻은 칼 사서
明朝歸去事猿公	내일 아침 돌아가서 원공을 섬기리라

이 시는 사마상여 젊었을 때의 모습을 자신에 비유한 시이다. 첫 구 長卿은 사마상여의 字이다. 사마상여가 卓文君과 함께 야반도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후의 생활 즉 “家徒四壁立(집에는 다만 네 벽만이 서있을 뿐)”이란 궁벽한 생활을 가리킨다. 둘째 구의 曼倩은 東方朔의 字로서, 東方朔은 西王母의 복숭이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하여 우리에게 長壽의 대명사인 “삼천갑자 동박삭”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유창한 변설과 재치로 漢 武帝의 사랑을 받아 측근이 되었고, 무제의 사치를 간언하는 등 정치적 입신을 꾀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自嘲한 賦 〈答客難〉과 〈非有先生之論〉을 비롯하여 약간의 시문을 남겼다. 그 보다는 海학과 易

살의 재사로서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셋째 구 若耶山은 지금의 浙江省 紹興市 남쪽에 있는 산으로, 그곳에서 歐冶子라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지막 구의 “事猿公” 즉 원공을 섬긴다는 것은 무술을 배운다는 뜻이다.<sup>18)</sup>

이 시는 사마상여나 동방삭 같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도 빈궁 속에서 고통을 겪었고 또 정치적 입신이 아닌 다만 해학이나 익살로서 살 수 밖에 없었던 터에, 자신 같은 일개 문인이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차라리 좋은 칼을 사서 무술이나 배우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出城別張又新酬李漢〉

李子別上國	이씨집 아들인 나 장안을 떠나는데
南山崆峒春	높고 험한 중남산에 봄이 왔다
不聞今夕鼓	오늘 저녁은 북소리 듣지 못하니
差慰煎情人	고향 생각 애타던 사람에게 위로가 되리니
趙壹賦命薄	조일은 박복한 운명을 노래했고
馬卿家業貧	사마상여는 집안이 가난했다
鄉書何所報	고향에서 보낸 편지에 어떻게 답할까
紫蕨生石雲	자줏빛 고비나물만이 구름 덮인 돌 틈에서 자란다
-下略-	

이 시는 장안을 떠나며 이한에게 지어준 시이다. 제6구에서 보듯이 짧은 시절 사마상여의 빈한함을 자신의 것으로 노래하였다. 제1구의 李子는 이하 자신을 가리킨다. 제5구의 趙壹은 자는 원숙, 한양 서현 사람이다. 《後漢書》에 따르면 그는 키가 9척이나 되고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멋있고 흰칠한 인물이었으나 자신의 재주를 믿고 거만하게 굴다가 배척당했다고 한다. 한번은 원봉이란 사람이 관상쟁이에게 그의 관상을 보게 하자 관상쟁이는 조일이 郡 정도의 작은 벼슬밖에는 하지 못할 인물이라고 했고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지은 〈자세질사부〉에는 “현명한 이가 비록 홀로 깨우쳤다 해도, 어리석은 무리들 때문에 곤궁하다. 제각기 분수를 지

18) 《吳越春秋》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越나라에 남쪽 숲에서 나온 처녀가 있었는데, 越王 句踐이 그녀를 맞이하고 하여, 그녀는 북으로 갔다. 도중에 한 노인을 만났는데 자칭 袁公이라 했다. 그는 처녀에게 칼을 잘 쓴다고 하니 한 번 보여 달라고 했고, 그녀는 솜씨를 보여주었더니, 원공은 대나무를 들어 내리쳤다. 처녀가 막아내자 노인은 나무 위로 날아올라 흰 원승이(白遠)으로 변하였다.”



키고, 부질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라. 슬프고 또 슬프다. 이것이 운명이던가” 라고 노래하여 그 일이 잘 나타나있다. 즉 이하는 이 시에서 조일의 회재불우와 사마상여의 貧寒함을 자신에 빗대어 노래한 것이다.

〈昌谷北園新筍四首·其四〉

古竹老梢惹碧雲	늙은 댓가지 끝에 푸른 구름 엉겼는데
茂陵歸臥嘆清貧	무릉으로 돌아와 누워 청빈함을 탄식한다
風吹千畝迎雨嘯	바람이 넓은 대밭에 불며 비를 맞는 휘파람 부는데
鳥重一枝入酒樽	새에 눌린 가지 하나 술잔 속으로 들어온다

이 시는 말년의 사마상여가 관직을 그만두고 무릉으로 돌아와 살았을 때의 일을 이하 자신과 비유하며 지은 시이다. 창곡은 이하의 고향이다. 그곳 북쪽 뜰에는 넓은 대나무 밭이 있었다. 이하는 대나무에 관한 시를 많이 남겼는데, 이 시들도 그 중 하나이다. 시인은 새로 난 대나무를 빌어 자신의 포부와 감개를 노래하였다. 〈昌谷北園新筍〉은 모두 4수로서 인용 시는 제4수이다. 전 3수가 모두 새로 난 대나무를 노래한 것에 비해서, 이 시는 집 옆에 있는 오래된 대나무를 노래함으로써 시를 시작한다. 이어 관직을 사직하고 무릉으로 돌아온 사마상여의 가난함과 병마를 자신에 빗대어 실제로는 자신의 적막과 청빈함을 노래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대나무는 하나의 매개에 불과하며 시인이 실제로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무릉으로 돌아와 가난에 시달렸던 사마상여와 그에 빗댄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마지막 구는 대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는데, 한 마리 새가 날아와 댓가지에 앉았고, 그 그림자가 술잔에 비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그 표현과 정취가 참으로 유별나고 뛰어나다고 느껴진다.

〈詠懷二首·其一〉

長卿懷茂陵	사마상여 무릉을 가슴에 품고
綠草垂石井	푸른 풀을 돌우물에 떨어뜨렸다
彈琴看文君	거문고 뜯으며 탁문군을 보니
春風吹鬢影	봄바람 살쩍머리에 불어왔었네
梁王與武帝	양왕과 무제는
棄之如斷綆	가시나무 베듯 그를 버렸으나

惟留一簡書  
金泥泰山頂

오로지 한 통의 글을 남겨  
무제는 태산 꼭대기에서 봉선을 하였다

이 시 역시 말년의 사마상여를 이하 자신에게 비유한 시이다. 이하는 진사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고 고향인 창곡에 머물며 시를 지었지만 가슴 속에는 회재불우의 심정으로 가득했다. 그러한 점은 바로 사마상여의 불우함을 빌어 자신의 감개를 서술한 것으로 보아 잘 알 수 있다. 사마상여는 景帝 때 武騎常侍를, 武帝 때는 황제의 묘를 관리하는 孝文園令을 지냈지만 모두 한직이었고 자신의 재능과 포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끝내는 사직하고 茂陵의 집으로 돌아와 칩거했다. 위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 네 구는 무릉 집 주위의 환경과 여유로운 생활의 정취를 노래했다. 그러나 이어 후반 네 구에서는 뛰어난 재능과 포부를 지닌 사마상여가 왜 무릉에 칩거하며 한가로운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재를 중시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사마상여는 비록 가시나무 베어지듯 버림을 받았으나, 오로지 〈封禪書〉라는 한 편의 글을 남겨 무제의 하여금 봉선을 도왔고, 《史記·司馬相如列傳》에 따르면 그것은 사마상여가 이미 예측한 일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마상여에 대한 이하의 인식은 이하 자신의 경력과도 많이 부합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따라서 많은 시에서 이하는 사마상여를 자신에 빗대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시들 이외에 이하의 시에는 사마상여에 대하여 언급한 시로는 〈答贈〉, 〈惱公〉, 〈河陽歌〉 등이 있다.

### Ⅲ. 結語

李賀는 중국시사에서 독특하고 신비한 존재이다. 唐 宗室 鄭王의 후예이지만 몰락한 가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친의 晉肅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출세의 관문인 진사시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 가슴 속에 맺힌 한이 어떠했는지는 그가 피를 토하듯 남긴 주옥같은 시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宋代 宋祈가 이하를 “鬼才”라 칭한 후, 이 말은 이하를 가장 잘 특징짓는 말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가 말한 귀재란 뛰어난 재주라기보다는 “鬼神의 시를 노래한 시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이후 이하에 대한 평은 그 범주를 크게 넘지 않는 인상식의 비평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왕실의 귀공자로써 색정의 시만 남긴 시인이란 극단적인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근자에 들어 그러한 잘못된 평은 많이 바로잡혀 가장 현대성을 가진 시인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귀신의 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諷諭詩 方面이나 기타 唯美主義나 象徵主義 方面으로 연구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부분은 시 자체의 올바른 감상과 평가에 따른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하 시에 나타난 수많은 전고에 대한 연구는 이하 시 연구에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작시에서의 용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기왕의 시에 전고가 사용되어 있다면 시에 대한 정확한 비평을 위해서라도 전고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입신양명의 지름길인 진사시를 위하여 이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작시에 임하였으며, 작시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의 습득에 힘을 기울였는지는 그의 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자신의 시에 어떤 인물을 언급하는 일은 주로 그 인물에 대한 호감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러한 호감은 자신의 생과 비슷하다는 동질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공감으로 확대되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작가가 사용한 인물과 전고의 내용은 그 작가의 사상과 풍격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하의 시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 중에서는 司馬相如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다. 司馬相如의 뛰어난 재능과 여러 일화에 대해 공감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屈原과 《楚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楚辭》는 杜牧이 李賀 詩의 文辭가 〈離騷〉를 능가한다고 평했을 만큼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어있다. 秦始皇과 漢武帝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공감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반면교사로서의 대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또한 당시 황제 憲宗의 神仙術 애호에 대한 비판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李賀 詩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그 형상은 유한한 시간과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말미암는 이하 자신의 비애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 【參考文獻】

- 杜牧,〈李長吉歌詩敘〉;《李賀詩集》,台北,里仁書局,民國 71.  
李商隱,〈李長吉小傳〉;《李賀詩集》,台北,里仁書局,民國 71.  
王琦,《李長吉歌詩彙解》,台北,世界書局,民國 71.  
葉葱奇,《李賀詩集》,台北,里仁書局,民國 71.  
朱子清,〈李賀年譜〉;台北,清華學報,1933.  
楊文雄,《李賀詩研究》,台北,文史哲出版社,民國 69.  
홍상훈,《시귀의 노래》,서울,명문당,2007.  
윌프리드 게린 외 공저, 정재완 역,《문학의 이해와 비평》,서울,청록출판사,1984.  
Brooks & Warren,《Understanding Poetry》,New York, Penguin Books, 1971.  
管雯,〈李賀詩歌的用典藝術〉;《樂山師範學院學報》第21卷 第6期,南京,2006年 6月.  
杜國清,〈李賀研究的國際概況〉;《現代文學復刊號 第2期》,台北,民國 66年.  
馬楊萬運,《李長吉研究》,台北,臺灣大學中文研究所碩士論文,民國 58年.  
李正治,《李賀詩裏的時間意識》;台北,《中華文化復興月刊》第10卷 4期,民國 66.  
張淑香,《李義山詩析論》,台北,藝文印書館,民國 69.  
方瑜,〈李賀歌詩的意象與造境〉;《中晚唐三家詩析論》,台北,牧童出版社,民國 68.

### 【中文提要】

李賀是中國詩歌史上的一个獨特而神秘的人物。雖李賀出身于唐宗室鄭王之后,但与皇族的关系已极为疏遠,家境也不富裕。其父晋肅官位很低,且因父名晋肅与進士同音,而喪失應進士試。朝政的黑暗腐朽,國勢衰微,加上詩人自己坎坷的一生,從而使其詩歌充滿了怀才不遇·悲天憫人的幽憤之情。

李賀在詩歌中的用典是丰富多彩的,用典可說是李賀作詩的一大特色,從他的用典中我們為他清貧不得志的一生同情,為他描繪的神話世界折服。這即說明了他的知識淵博,也為其詩歌增添了无窮的魅力。

詩作借用某个人物來源于對此人物的好感,這種好感使得自己感覺与其是同類人,而很容易產生一种共鳴。詩人借用歷史人物,以典入詩來表達自己的愿望或情感。

在李賀的詩歌中，用司馬相如這個人物的典故最多，詩人喜歡用司馬相如自比來抒發情感。并且多次提到過屈原和楚辭，這在一定程度上都表示了一種認同感。反而，在引用秦始皇和漢武帝時却作為一種反面教材，也可說是對唐憲宗好神仙術的諷刺和批評。

總而言之，李賀在詩作中借用歷史人物和塑造一系列形象來表達自己對生死問題的苦悶和對時間短暫的感慨。

### 【主題語】

李賀，形象，屈原，楚辭，秦始皇，漢武帝，司馬相如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

